

「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시리즈 2:
의회외교편

제20대 국회 의회외교, 얼마나 달라졌나?

2017. 3.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김도연



I 들어가는 말

그동안 국회 차원의 의회외교는 외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본연의 역할이나 성과 면에서 미흡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의회외교는 그 목적의 당위성 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체 시찰 및 전시회 참가, 교민 면담 등까지 외교의 범주에 넣고 방문 목적 또한 ‘해외 교육, 법 등 제도 연구’와 같이 단기간 방문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것까지 포함시켜 의회외교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더구나 국회의 4대 역할과 권한(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 중 국회의 외교 권한은 헌법에 없는 권한이다. 즉, 외교는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외교의 권한을 홈페이지에 명시하여 국회 본래의 권한인 것처럼 행사해 왔다. 물론공공 외교 차원에서 국회의 의회외교는 행정부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교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제20대 국회 의회외교가 역대 국회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20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

1. 정당별 · 의원개인별 현황

2016년 5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자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의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1월 중순 현재 총 67건의 의회외교(방문) 활동을 수행했다. 정당별 의회외교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72명이 105건의 의회외교를 수행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이 93건, 국민의당 20명이 28건, 바른정당 16명이 25건, 정의당 4명이 5건 순으로 의회외교를 수행했다(【표 1】참고).

【표 1】 20대 국회 정당별 의회외교 현황

(기준 : 2017.1.16, 단위: 명, 건)

연번	정당명	총 의원 수	해외출장 의원 수(비율,%)	건수
1	더불어민주당	121	72(59.5)	105
2	자유한국당	95	56(58.9)	93
3	국민의당	39	20(51.3)	28
4	바른정당	32	16(50)	25

연번	정당명	총 의원 수	해외출장 의원 수(비율,%)	건수
5	정의당	6	4(66.7)	5
6	무소속	7	4(57.1)	7
계		300	172(57.3)	263

※ 자료: 국회정보공개 청구자료 재구성,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현황 제외.

의원개인별 의회외교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개월간 1회 수행한 의원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회 34명, 3회 14명 4회 4명 순이다(【표 2】 참고).

【표 2】 20대 국회 의회외교 건수별 의원 현황

(기준 : 2017. 1. 16)

건수 구분	1건	2건	3건	4건	계
의원 수(명)	119	34	15	4	172

※ 출처: 정보공개 청구 자료 재구성,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현황 제외.

2. 방문 국가별 현황

방문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미의 과테말라부터 몰디브, 팔라우, 피지까지 다양했으며 2017년 1월 현재까지 총 51개국을 방문했다. 일본이 10회로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독일,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했다(【표 3】 참고).

【표 3】 20대 국회 의회외교 방문 국가별 현황

(기준 : 2017.1.16)

연번	국가명	횟수	연번	국가명	횟수	연번	국가명	횟수
1	과테말라	1	18	불가리아	1	35	캐나다	2
2	그리스	1	19	브라질	2	36	코스타리카	2
3	네덜란드	1	20	스리랑카	2	37	콜롬비아	1
4	노르웨이	4	21	스웨덴	7	38	쿠바	2
5	뉴질랜드	2	22	스위스	3	39	태국	1
6	니카라과	1	23	스페인	5	40	터키	1
7	대만	2	24	싱가포르	2	41	파나마	1

연번	국가명	횃수	연번	국가명	횃수	연번	국가명	횃수
8	덴마크	5	25	아르헨티나	1	42	파라과이	1
9	독일	6	26	영국	3	43	팔라우	1
10	러시아	4	27	오스트리아	2	44	포르투갈	4
11	말레이시아	2	28	이란	1	45	폴란드	2
12	멕시코	2	29	이탈리아	1	46	프랑스	3
13	모로코	2	30	인도	2	47	피지	1
14	몰디브	1	31	일본	10	48	핀란드	4
15	몽골	1	32	조지아	1	49	헝가리	2
16	미국	2	33	중국	2	50	호주	3
17	벨기에	3	34	체코	2	51	홍콩	1
계							51개국	119

※ 출처: 정보공개 청구 자료 재구성,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현황 제외, 7년 기준.

4. 방문 시기별 현황

방문시기를 분석해 보면 2016년 8월로 17건의 해외 방문외교를 추진하여 최다 방문 횃수를 기록했다. 8월은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휴지기라 불릴 정도로 역대 국회에서 해외 방문이 잦은 달이다. 20대 국회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16년 12월에 16건의 해외 방문외교를 추진함으로써 8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6년 12월은 국내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개의치 않고 방문외교를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난 이후인 12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해외방문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고).

【표 4】 20대 국회 의회외교 월별 추진현황

(기준 : 2017. 1. 16)

시기		횃수(건)	시기		횃수(건)
연도	월		연도	월	
2016	6	1	2016	10	5
	7	4		11	10
	8	17		12	16
	9	8	2017	1	6
합 계					67

※ 출처: 정보공개 청구 자료 재구성,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현황 제외, 출발일을 기준함.

5. 의회외교 비용

국회가 지난 8개월 동안 의회외교를 위해 소요한 비용은 약 22억 원이다. 이는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출장 등 비공개를 제외한 공개적인 경우만 산출한 것이며 67건 중 정산중인 12건을 제외한 비용이다(【표 5】 참고).

【표 5】 20대 국회 해외출장 활동 소요예산

(기준 : 2017.1.16)

구 분	건 수	총 비용 (단위: 천원)
국외 출장(상임위 출장 포함)	55(정산 중 12건 제외)	2,204,514

※ 출처: 정보공개 청구 자료 재구성,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현황 제외

6. 의회외교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여부

국회 규정에 의하면 의원외교를 수행한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67건의 의원외교 중 결과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은 29건이며, 아직까지 게재되지 않은 결과보고서는 38건으로 현재 제출여부를 알 수 없다(【표 6】 참고).

【표 6】 20대 국회 해외출장 활동 후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현황

(기준 : 2017.2)

연번	구 분	건 수
1	보고서 게재	29
2	게재 안 됨	38
계		67

※ 출처: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정보마당-의회외교활동 참조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보고서에서 출장 목적 및 출장 일정과 결과가 미진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2016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피지, 호주를 방문한 ‘외교통일위원회 방문단 해외시찰’의 경우 방문 목적은 “우리나라와 방문국 간 상호 우호협력 증진 방안 모색”, “전세계적인 테러확산에 따른 교민안전 대책 방안 점검 등 공관주요 현안 보고” 및 “방문국 교민간담회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가장 흔한 의회외교 명분이다. 방문 일정도 2일 동안 “교민안전대책보고”,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안전대책 현장 점검” 등 느슨하다(<그림 1, 2> 참고). 방문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체 104페이지 분량 중 의회외교 성과와는 무관한 “참고자료”가 60페이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

방문목적

- 우리나라와 방문국 간 상호 우호협력 증진 방안 모색
- 전세계적인 테러확산에 따른 교민안전 대책 방안 점검 및 공공주요협안 보고
- 방문국 교민간담회 및 애로사항 청취 등

2

주요일정

국 가 (도시)	일 자	현지 시간	주 요 일 정
수바 (피지)	8.10(수)	오후	피지 국회의장 면담 피지 외교장관 면담 교민안전대책등 공관업무 보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업무보고
		저녁	이동(수바 → 난디)
시드니 (호주)	8.11(목)	오전	이동(난디 → 시드니)
		오후	교민 안전대책 등 공관업무 보고 한국전 발전기납비 협회
시드니 (호주)	8.13(토)		교민 및 지상사 밀집지역 안전대책 현장 점검 등
인천 (한국)	8.14(일)		이동(시드니 → 인천)

<그림 1> 2016년 8월 외통위 해외시찰 목적
(결과보고서 캡처)

<그림 2> 2016년 8월 외통위 해외시찰 일정
(결과보고서 캡처)

2016년 10월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 환노위 일본 방문단의 경우, 최근 경주 지진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 방문 목적이었다. 여야 의원 13명과 지원 인력 2명을 동반한 대규모 방문단은 2박 3일 동안 방문 일정이 하루에 1개 정도였다(<그림 3, 4> 참고).

2. 주요일정

도시	일 자	시 간	주 요 일 정
도쿄	10.19 (수)	13:30	○ 일본 기상청 방문
		16:00	○ 동경대 지진연구소 간담회
쓰쿠바시	10.20 (목)	10:30	○ 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 방문
도쿄	10.21 (금)	11:00	○ 도쿄가스 방문

<그림 3> 2016년 10월 환노위 일본방문 일정
(결과보고서 캡처)

1. 지진 관련 일반사항

■ 지진 일반사항

- 지진은 지구내부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 즉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현상
- 지진의 발생 원인
 - 판구조론: 지구의 표면은 12여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호수에 떠있는 빙목처럼 1년에 2-10cm의 속도로 이동함. 판의 경계에서는 서로 부딪치거나 밀고, 때로는 포개지면서 지각내부에 힘을 축적하여 지진이 발생

< 세계의 주요 판들 >

<그림 4> 2016년 10월 환노위 일본방문 보고서 중
(결과보고서 캡처)

2016년 9월 13일부터 9월 18일(4박 6일)까지 여야 의원 5명은 “노동정책 연구 및 사례연구 조사를 위한 해외시찰”을 목적으로 오스트리아 및 독일을 방문했다. 이들은 4박 6일 동안 5개의 공식일정을 마쳤는데 이 중 2개가 “주오스트리아대사 주최 관저만찬”과 “주독일대사 주최 관저만찬”이다. 보고서에 게재된 ‘방문성과’의 주요 내용은 “오스트리아노동회의소(AK) 조직과 운영시스템의 이해”, “독일노동법원제도의 이해”, “오스트리아·독일 등 비정규직 현황 파악” 등으로 외교와는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굳이 당사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포털 검색으로도 발견 가능한 내용들이다(<그림 5, 6> 참고).

2. 주요일정		
도 시	일 자	주 요 일 정
비엔나	9. 14. (수)	◦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AK) 방문·연담 ◦ 주오스트리아대사 주최 관저만찬
베를린	9. 15. (목)	◦ 독일노동법원 방문·연담
	9. 16. (금)	◦ 연방하원의사당 시찰 ◦ 주독일대사 주최 관저만찬

<그림 5> 2016년 9월 오스트리아·독일 방문일정(결과보고서 캡처)

2. 독일 연방하원의사당 시찰



○ 독일 의사당은 1894년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건축가 파울 말로트(1841~191년)가 지은 제2제국의 제국 의회 의사당이었습니다. 1933년 나치당 과격분자들에 의해 불타버렸는데, 간판의 차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대참사는 연했으나 이어진 연합군의 공습으로 또다시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정부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1958년부터 1972년 사이에 복구를 하였습니다. 199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제국 의회 의사당은 다시 하나가 된 독일의 입법부, 연방 의회의 본거지가 됨. 1999년 영국의 건축가 포스터 경(1935년생)은 벽만 남기고 건물틀을 모두 뜯어낸 뒤 내부의 안마당 위로 가벼운 유리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돔을 덮었으며, 거울로 덮은 환기통이 돔에서 내려와 아래층의 조명과 환풍을 동시에 해결해줌. 돔 아래에는 역시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본회의장이 있는데, 본회의장 의석은 파란색이며 각 정당별로 구역이 구분되어 있음.

<그림 6> 2016년 9월 오스트리아·독일 방문 결과보고서 중 (결과보고서 캡처)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야당 의원 3명은 “독일의 연금제도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이들의 일정 대부분은 오찬(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주독일대사), 면담 및 시찰로 채워져 있다.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방문성과”에는 “독일의 연금제도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이라고 적혀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성과를 말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그림 7, 8>참고).

상기에서 기술한 사례는 일부분이며 출장 목적, 일정과 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의회외교 사례는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2. 주요일정

방문국	도시	일 자	주 요 일 정
독일	프랑크푸르트	5. 2(월)	○ 프랑크푸르트 시청 시찰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주최 오찬
	베를린	5. 3(화)	○ 독일노인문제연구소 연금전문가 면담 ○ KOTRA 직원 초청 간담회
		5. 4(수)	○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면담 ○ 주독일대사 주최 오찬

<그림 7> 2016년 5월 독일 방문일정(결과보고서 캡처)

프랑크푸르트

가. 프랑크푸르트 시청 시찰



- 일 시 : 2016. 5. 2(월) 10:00
- 장 소 : 프랑크푸르트 시청사 내
- 참석자

우 리 측	상 대 측
강기정 의원	Karlheinz Voss 시의장장
김성주 의원	
신경훈 의원	
차유경 협력관	
신철식 영사	
오세리 주무관	

- 통 역 : 오세리 주무관(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그림 8> 2016년 5월 독일 방문 결과보고서 중(결과보고서 캡처)

III 결론

이상에서 지난 8개월간 제20대 국회의 의회외교 현황을 살펴보았다. 의회외교는 그동안 그 목적과 당위성, 방문 성과 등을 놓고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새롭게 개원한 20대 국회가 의회외교에 있어 어떠한 변화와 개선이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기존의 의회외교의 구태를 답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목적에 있어 기존의 시찰, 면담, 오·만찬 같은 일정이 여전히 반복되었으며, 방문시기 또한 역대 국회와 같이 ‘정치휴지기’라 불리는 1월, 8월, 12월에 집중되었다. 더구나 2016년 12월은 대통령 탄핵이 불려온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소추안 발의와 통과를 전후로 대거 해외로 의회외교 활동을 실시했다. 내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해외로 발길을 돌린 국회의 의회외교 활동 시기의 적정성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의회외교의 성과는 대부분 현지 방문의 필요성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며 방문성과 내용의 일부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방문의 경우 결과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출장결과와는 무관한 방문국 소개로 채우기도 하는 구태가 여전히 등장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의회외교 개선과 이러한 의회외교 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의회외교” 심사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 출장 목적이나 당위성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 아닌 “외교의 권한”에 대해 그 당위

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부나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첨부>

1. 제20대 국회 의원 개인별 의회외교 추진현황

정당명	의원명	횟수	의원명	횟수	의원명	횟수
더불어민주당 (72)	강병원	1	박영선	4	이용득	2
	강창일	2	박완주	1	이원욱	2
	강훈식	1	박용진	2	이재정	3
	고용진	1	박재호	1	이종걸	2
	권칠승	1	백재현	3	이찬열	2
	금태섭	1	백혜련	2	이철희	2
	기동민	1	변재일	1	이춘석	2
	김경협	1	서형수	1	인재근	1
	김부겸	1	소병훈	3	임종성	1
	김성수	1	송영길	1	전해철	1
	김영주	2	송옥주	1	전혜숙	1
	김영춘	1	신창현	1	정재호	1
	김정우	1	심재권	1	정춘숙	1
	김태년	1	안규백	1	제윤경	1
	김해영	1	안민석	1	조웅천	1
	김현건	1	양승조	1	조정식	2
	김현미	1	어기구	2	진선미	1
	남인순	1	오영훈	1	진영	1
	노웅래	1	오제세	1	최명길	1
	문미옥	1	원혜영	1	최운열	1
	민병두	1	위성곤	1	한정애	2
	민홍철	3	윤관석	2	홍영표	3
	박범계	1	윤호중	2	홍익표	2
	박병석	4	이개호	1	황희	2
자유한국당 (56)	강효상	2	박덕흠	2	이우현	2
	곽대훈	1	박찬우	1	이은권	1

정당명	의원명	횟수	의원명	횟수	의원명	횟수
	김규환	3	백승주	1	이장우	1
	김석기	4	서청원	3	이주영	2
	김선동	2	성일종	1	이채익	3
	김성찬	1	송희경	4	이철우	1
	김성태	2	신보라	3	이헌승	3
	김순례	2	신상진	2	임이자	2
	김승희	1	심재철	1	정우택	1
	김정재	1	원유철	1	정종섭	1
	김정훈	1	유재중	3	조경태	1
	김종석	3	윤상현	1	조원진	2
	김진태	2	윤영석	1	조훈현	1
	김태흠	2	윤재옥	2	주광덕	1
	김현아	3	윤종필	2	지상욱	1
	나경원	1	이만희	1	최경환	1
	문진국	1	이명수	2	최교일	1
	민경욱	1	이양수	1	추경호	1
	박대출	1	이완영	1		
국민의당 (20)	김경진	1	신용현	1	정동영	1
	김관영	1	오세정	2	정인화	1
	김광수	1	윤영일	1	조배숙	3
	김삼화	1	이동섭	1	주승용	1
	김성식	1	이상돈	3	채이배	2
	김중로	1	이용주	1	최도자	1
	손금주	1	장병완	3		
바른정당(16)	권성동	1	오신환	2	장제원	1
	김성태	1	유의동	2	하태경	1
	김영우	1	이진복	1	홍일표	2
	김재경	1	이혜훈	4	홍철호	1
	박순자	2	정병국	1		
	박인숙	1	정양석	3		
정의당(4)	노회찬	1	이정미	2		

정당명	의원명	횟수	의원명	횟수	의원명	횟수
	심상정	1	추혜선	1		
무소속(4)	김종훈	1	정갑윤	1		
	이찬열	3	홍의락	2		

※ 국회정보공개 청구자료(2016.6-2017.1)

2. 제20대 국회 의회외교 실시 현황

(기준 2017. 2)

연번	사업명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명	소요예산	결과보고서
1	2016 WTO에 관한 의원회의	16.6.12~6.16	스위스	홍영표(민) 김종석(자)	25,425	○
2	국회 한-중남미 협력포럼 남미 방문	16.7.08~7.17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박병석(민) 이찬열(민) 안규백(민) 전혜숙(민) 김진태(자) 여기구(민)	141,194	○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해외시찰	16.7.19~7.27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김영춘(민) 김태홍(자) 이개호(민)	29,965	계재 안 됨
4	복지제도 시찰을 위한 스웨덴, 덴마크 방문	16.7.21~7.30	스웨덴 덴마크	금태섭(민) 기동민(민) 박용진(민) 이철희(민) 강병원(민) 이양수(자)	63,190	○
5	보건복지위원회 방문단 해외시찰	16.7.25~8.02	프랑스 스웨덴 영국	양승조(민) 인재근(민) 김광수(국) 윤종필(자)	63,521	○
6	제46차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 PPU) 총회	16.8.01~8.06	팔라우	백혜련(민) 문미옥(민) 김현아(자) 이재정(민)	26,570	○
7	여성·가족청소년정책현 황파악을위한스웨덴·핀 란드·러시아방문	16.8.06~8.13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신용현(국)	9,184	○
8	2016 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	16.8.06~8.13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남인순(민) 윤종필(자) 정춘숙(민)	38,840	○
9	외교통일위원회 방문단 해외시찰	16.8.09~8.14	피지 호주	윤영석(자) 윤상현(자) 정양석(바)	31,763	○
10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의회제도시찰	16.8.10~8.17	노르웨이 러시아	권성동(바) 김진태(자) 조웅천(민)	47,124	계재 안 됨
11	정무위 국외출장	16.8.10~8.18	폴란드	이진복(바)	43,700	계재 안 됨

연번	사업명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명	소요예산	결과보고서
			헝가리 불가리아	김종석(자) 최운열(민)		
12	국회 한-중남미 협력포럼 남미 방문	16.8.13~8.21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최경환(자) 백재현(민) 박덕홍(자) 박대출(자) 윤재옥(자) 김태홍(자) 이현승(자)	110,932	○
13	국방위원회 해외시찰	16.8.14~8.20	노르웨이 폴란드	김영우(바) 김중로(국)	24,303	계재 안 됨
14	조선 산업 구조조정 정책 사례 발굴을 위한 영국, 스웨덴 방문	16.8.14~8.21	영국 스웨덴	유의동(바) 심상정(정) 제윤경(민) 채이배(국)	53,689	○
15	사회적 대타협 사례 및 복지제도 현황 조사를 위한 덴마크, 노르웨이 방문	16.8.17~8.24	덴마크 노르웨이	민병두(민) 김선동(자) 이원욱(민) 박재호(민)	49,587	○
1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회 해외시찰	16.8.18~8.2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루)	이동섭(국)	20,276	○
17	유럽 노면전차 및 도심 교통체계 조사	16.8.20~8.26	프랑스 헝가리 체코	조정식(민) 이우현(자) 민홍철(민) 윤영일(국)	46,434	○
1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방문단 해외시찰	16.8.21~8.29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장병완(국) 이채익(자) 손금주(국) 홍의락(무)	55,952	○
19	국토교통위원회 해외사업 수주지원 관련 해외시찰	16.8.21~8.26	태국 싱가포르 홍콩	주승용(국) 윤관석(민) 박찬우(자) 황희(민) 김현아(자)	37,620	계재 안 됨
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해외시찰	16.8.22~8.25	몽골	김성찬(자) 정인화(국)	5,043	계재 안 됨
21	중동지역 에너지·자원분야 특정현안 방문	16.9.11~9.19	조지아 이란	홍영표(민) 윤호중(민) 김성식(국) 홍익표(민)	52,596	○
22	노동정책 연구 및 관련 사례조사를 위한 해외시찰	16.9.13~18	오스트리아 독일	이용덕(민) 조훈현(자) 이철희(민) 이재정(민) 채이배(국)	55,752	○
23	2016 리우장애인올림픽 국회참관단 리우 방문	16.9.4~9.10	브라질	심재철(자) 김재경(바)	42,882	계재 안 됨
2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방문단 캐나다 방문	16.9.30~10.3	캐나다	김성태(자)	8,668	○
25	제8차 세계스카우트 의원연맹 총회 참석	16.8.27~9.4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주영(자) 이명수(자) 이찬열(민)	57,761	계재 안 됨
26	조선통신사 행사참석	16.8.20~8.21	일본	이채익(자) 유재중(자)	6,847	계재 안 됨

연번	사업명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명	소요예산	결과보고서
				김석기(자)		
27	합동간사회 참석	16.9.9-9.11	일본	강창일(민) 유재중(자) 이철우(자) 이명수(자) 박순자(바) 노웅래(민) 이춘석(민) 오영훈(민) 장병완(국) 오세정(국)	34,905	계재 안 됨
28	한일축제한마당 참석	16.9.23-9.24	일본	서청원(자) 정갑윤(무) 지상욱(자) 김정재(자) 임이자(자)	13,917	계재 안 됨
29	ICAPP 제27차 상임위원회의 및 제9차 총회	16.9.1-9.5	말레이시아	이혜훈(바) 박인숙(바) 박영선(민) 최명길(민) 권철승(민) 이상돈(국) 노회찬(정)	73,407	계재 안 됨
30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시찰	16.9.8-9.13	중국	박범계(민) 이용주(국) 오신환(바)	19,533	○
31	환경노동위원회 해외시찰	16.10.19-10.21	일본	홍영표(민) 하태경(바) 한정애(민) 김삼화(국) 조원진(자) 문진국(자) 이상돈(국) 신창현(민) 서형수(민) 송옥주(민) 이정미(정) 임이자(자) 신보라(자)	42,066	○
32	제135차 국회의회연맹(IPU)총회	16.10.23-10.27	스위스	진영(민) 박영선(민) 이상돈(국) 정종섭(자) 이만희(자)	77,938	계재 안 됨
33	국방 및 경제분야 현장조사를 위한 모로코, 스페인 방문	16.11.6-11.13	모로코 스페인	이종걸(민) 홍의락(무)	28,119	계재 안 됨
34	국회 한-중남미 협력포럼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16.11.8-11.15	멕시코 니카라과	박병석(민) 이춘석(민) 이완영(자) 이용득(민) 소병훈(민)	79,271	○
35	유엔기후변화회의의 중 의원회의 참석	16.11.11-11.17	모로코	김영주(민) 홍영표(바) 한정애(민) 이정미(정)	46,881	계재 안 됨
36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미국 방문	16.11.14-11.18	미국	정동영(국) 정병국(바) 조배숙(국)	91,307	○

연번	사업명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명	소요예산	결과보고서
				김부겸(민) 나경원(자)		
37	제8차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	16.11.16-11.23	캐나다	민홍철(민) 백승주(자)	29,586	계재 안 됨
38	과학, 정보통신기술 분야 관련 호주, 뉴질랜드 방문	16.11.20-11.2	호주 뉴질랜드	추혜선(정)	8,487	○
39	하이드스 테크놀로지(주)문제해결 을 위한 대만방문	16.12.7-12.8	대만	김종훈(무)	1,210	○
40	손기정선수의 국적회복과 동상 제작식 참석을 위한 독일 방문	16.12.10-12.13	독일	김성태(바) 안민석(민) 송희경(자)	17,273	계재 안 됨
41	재정위기 극복현황 및 MICE 산업현황 조사를 위한 스페인, 포르투갈 방문	16.12.13-12.20	스페인 포르투갈	김영주(민) 김선동(자) 김종석(자) 정재호(민)	52,092	○
42	중유럽 주요국 의회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방문	16.12.14-12.21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장병완(국) 조배숙(국) 이찬열(무) 김규환(자) 여기구(민)	63,385	○
43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을 위한 대만방문	16.12.22-12.24	대만	조경태(자) 김승희(자) 최도자(국) 추경호(자) 최교일(자)	8,460	○
44	항공정비사업 및 고속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	16.12.29-1.4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정식(민) 이찬열(무) 이혜훈(바) 윤관석(민)	정산중	○
45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 현황 조사를 위한 인도, 일본 방문	16.12.30-17.1.6	인도 일본	신상진(자) 김성태(자) 강효상(자) 김경진(국)	정산중	○
46	AI방역제도 관련 농해수위 해외시찰	16.12.31-17.1.7	프랑스 덴마크	김현건(민) 위성곤(민)	정산중	계재 안 됨
47	도시정책 및 국토정책 사례조사를 위한 포르투갈, 스페인 방문	16.12.31-17.1.7	포르투갈 스페인	이원욱(민) 백혜련(민) 김현아(자) 강훈식(민)	정산중	계재 안 됨
48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 S) 방문	17.1.3-1.10	미국	김성수(민) 송희경(자) 고용진(민)	정산중	○
49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사례 조사를 위한 스페인, 포르투갈 방문	17.1.4-1.11	스페인 포르투갈	전해철(민) 이현승(자) 권철승(민) 황희(민)	정산중	계재 안 됨
50	유럽 협의정치 연구를 위한 해외시찰	17.1.9-1.16	독일 벨기에	오신환(바) 유의동(바) 박용진(민) 김해영(민)	정산중	계재 안 됨
51	영국 브렉시트 이후 유협 경제동향 조사를	17.1.15-1.22	영국 벨기에	백재현(민) 홍익표(민)	정산중	계재 안 됨

연번	사업명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명	소요예산	결과보고서
	위한 영국, 벨기에, 덴마크 방문		덴마크	곽대훈(자) 이재정(민)		
52	한일의원연맹 현안협의회	16.10.18-10.19	일본	유재중(자) 김석기(자) 장제원(바) 윤재옥(자) 소병훈(민) 김정우(민) 백재현(민) 오세정(국)	18,526	계재 안 됨
53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교류	16.10.20-10.22	일본	서청원(자) 이우현(자) 홍철호(바) 이장우(자) 박덕홍(자) 김순례(자) 김정훈(자) 조원진(자) 김석기(자) 송영길(민) 박영선(민) 박병석(민) 조배숙(국)	35,151	계재 안 됨
54	조선통신사위원회 제2차 방일	16.11.25-11.27	일본	정우택(자) 이채익(자) 김석기(자) 강효상(자) 송희경(자) 김규환(자) 변재일(민) 민홍철(민)	25,712	계재 안 됨
55	재일민단중앙회 신년회 참석	17.1.11-1.13	일본	서청원(자) 성일중(자) 박병석(민) 윤호중(민)	정산중	계재 안 됨
56	IPU 총회 참석	16.10.21-10.27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주영(자) 김규환(자) 이종걸(민) 소병훈(민)	58,683	계재 안 됨.
57	2017환경시찰프로그램(한국아동친구환경의원 연맹)	17.1.7-1.13	스리랑카 몰디브	원유철(자) 오제세(민) 박순자(바) 김순례(자)	정산중	계재 안 됨
58	ICAPP특별회의(이주및 난민)	16.11.4-1.8	터키	이혜훈(바) 정양석(바) 신보라(자) 박영선(민) 이찬열(무)	91,533	계재 안 됨
59	ICAPP Mission(유럽 정당 간 협력) 사전회의	16.11.29-12.3	벨기에	이혜훈(바)	13,957	계재 안 됨
60	지중해 난민지역 현장방문(아시아인권의 원연맹)	16.12.17-12.23	그리스 이탈리아	홍일표(바) 송희경(자) 신보라(자)	34,003	계재 안 됨
6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원내대표단 해외방문	16.12.30-17.1.4	독일	박완주(민) 김관영(국)	28,448	계재 안 됨
6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해외시찰	16.11.20-11.28	호주 뉴질랜드	신상진(자) 이은권(자)	21,880	계재 안 됨

연번	사업명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명	소요예산	결과보고서
63	외교통일위원회 국외출장	16.12.3-12.7	중국	심재권(민)	3,875	계재 안 됨
64	외교통일위원회 국외출장	16.12.25-17.1.2	인도 스리랑카	김경협(민) 원혜영(민) 정양석(바)	30,031	계재 안 됨
65	국토교통위원회 해외시찰	16.12.26-12.28	일본	이헌승(자) 임종성(민)	6,060	계재 안 됨
6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시찰	16.12.30-17.1.8	쿠바 파나마 과테말라	김현미(민) 김태년(민) 진선미(민)	정산중	계재 안 됨
6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시찰	16.12.31-17.1.11	멕시코 코스타리카 쿠바	주광덕(자) 민경욱(자)	정산중	계재 안 됨